

Vale사, 中 주문량 감소에 따라 인력감축 및 철강생산 중단

- 브라질의 세계적인 광산개발업체인 발레(Vale)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자구책의 하나로 브라질 내 2개 공장의 철강 생산을 중단하기로 발표
 - 철강생산 대상 지역은 남부 에스피리토 산토 주(州) 포르토 데 투바랑 지역의 2개 공장으로 이 두 공장의 연간 철강 생산량은 730만t이며, 생산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로 주문량 급감인 것으로 설명
- 아울러 Vale사는 지난 주 원자재 수요 감소를 이유로 '08년 1~9월중 5만8천t의 니켈과 3만9천t의 구리를 생산한 보이제이스 베이 광산의 개발 활동을 내년 7월 한 달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,
 - 내년 1월부터는 캐나다 내 온타리오 주 소재 클리프 사우스 광산의 니켈 생산 활동도 중단하기로 결정
 - Vale사는 이 광산에서 연간 8천t의 니켈을 생산해 왔으며, 생산중단 기간을 언급하지 않음에 따라 장기화 될 전망
 - 한편, 8억1천400만달러를 투자한 클리프 디프 광산 개발 계획도 연기기로 하는 등 신규 투자 계획을 최소한 1년 미루기로 하는 등의 대책도 발표
- 브라질은 물론 콜롬비아, 아르헨티나, 칠레, 미국,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6만 2천여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세계 2위 규모 업체 Vale사는 글로벌 위기의 현실을 반영하여 다방면의 인력감축 정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
 - 실제 지난 12월 3일 날짜로 근로자 1,300명을 해고하였으며, 이외

근로자 5,500명에 대하여 강제 집단휴가를 실시

- 아울러, 지난 '06년 170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캐나다 광산기업 인코(Inco)의 근로자들에 대해 자발적인 은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인력감축을 추진할 예정
- Vale사의 이번 인력감축 조치는 두번째로 큰 공장이 있는 미나스제라이스에서 실시되었으며, 이외 에스빠리또산또(ES) 공장에서도 500명이 해고되었고 다음주 초에 또 다른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리오 공장은 폐쇄될 예정
- 이와 관련하여 Vale사는 국제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되어 원자재 수요가 급감하게 될 경우 '09년에도 약 30%에 달하는 근로자를 추가로 해고할 여지도 있음을 언급
- 세계 금융 시장 위기를 심화시킨 Lehman Brothers은행 파산이 있기 전인 9월까지만 해도 철광석 생산량을 2억 7천만 톤에서 3억 톤으로 늘릴 계획이었던 Vale사는 이번 생산 중단 및 인원 감축 조치로 10월 말에 발표된 예상 생산량 중 9.5%에 달하는 3천만 톤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Goldman Sachs은행은 4500만 톤까지 감소할 것으로 평가

<상파울루 사무소 제공>